

자기만의 방

이 지 훈

창원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자 기만의 방’과 ‘연 500파운드 의 생활비’. 이것은 버치니아 울프가 1929년 출판한 『자기만의 방』 (A Room of one's own)에서 역설한 여성 전업 작가의 최저 저술 조건이다. 역사상 수많은 남성 작가에게는 아마 이 조건이 만족되었을 것이다. 혹시 연 500파운드의 생활비라는 조건은 가끔 만족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만의 방은 언제나 갖추지 않았을까? 500파운드는 현재의 환율(2,240원)로는 1,220,000원 정도의 돈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최저 생계비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돈은 지금은 한 10배는 늘려야 연 최저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변함

없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첫번째 조건, 자기만의 방이다.

울프가 옳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도 여성 작가가 적은 이유는 여자에게 재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인생은 또 어떤 의미로는 평생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가정이라는 의미의 ‘집’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단지 공간적 의미의 집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하드웨어인 건축물 자체, 집이라는 틀, 주거지이다. 그리고 두번째 의미는 소프트웨어인 집, 내 체취와 시간과 땀이 스며들고 배어, 나 화(化)된 공간으로

서의 의미이다. 거기에는 내가 편안히 느끼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그 물건들 하나 하나에는 나의 일부분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의 삶을 누리며 창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두번째 의미의 집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축소시키면 바로 자기만의 방에 대한 꿈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 여성은 한평생 자기 방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수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자기만의 방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방은 실로 그 어떤 방과도 다르다. 잘 모르긴 하지만 고급 공무원들의 집무실, 경영인·변호사들의 사무실, 혹은 성직자들의 공간과도 다르다. 그들의 방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런 만큼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그러나 소위 연구실은 그렇지 않다. 이따금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찾아오고, 물론 손님들도 오지만 내 일이 완전히 중단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 시간을 뺏을세라 아주 신중을 기한다. 연구실은,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실로 글쓰기(작업)와 사색의 공간으로는 최상이다. 이 공간은 내 삶을 걸러주는

거름종이인 것이다. '자기만의 방'이 내게 허락된 것에 대한 감사는 연 500파운드의 몇 곱절의 경제적 여유가 허락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최초로 내 방을 가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 방이 아니라 내 책상이다. 어머니는 하루 나를 데리고 집 근처의 가구점으로 가셨다. 제법 큰 책상이었다. 하긴 그 때는 아동용 책상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냥 합판으로 위를 씌운 사무용 책상으로 서랍이 두 개 달린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책상을 아래채 사랑방에다 놓아 주셨다. 아마 그 때가 최초로 내 공간을 갖던 때일 것이다. 그 때의 설렘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 때의 내 책상은 어린 조무라기 동생들과는 이젠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는 작은 상징물이었다. 그 사랑방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의 서재였지만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방으로 세계문학전집을 위시한 제법 많은 책들이 있었다. 나는 서가에서 『허생전』, 『첫사랑』, 『파우스트 박사』 등을 빼서 읽었고 그 곳 책상 앞에서 동시를 썼으며 내 생애의 첫 소설을 집필했다. 그 때 어린 내가 부딪혔던,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방법을 몰랐다. 결국 내 생애의 최초의 소설 집필은 실패

로 끝났다.

6학년이 되자 내 책상은 위채로 옮겨졌다. 마루 뒤쪽. 뒤주가 놓이고 집의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골방이나 창고 같은 곳이었다. 아마 아래채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어서 그랬던 것 같다. 우리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 우선 할머니가 계셨고, 고모와 사촌들은 우리집에 살다시피 했고, 과수원 돌보는 아저씨, 또 집안 일 돌보는 언니들, 이웃집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다. 거기다가 다섯 명의 동생들! 아마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유독 더 나만의 공간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중학생이 되자 아래채 사랑방이 다시 내 방이 되었다. 그러나 이름만 내 방이지 모두의 방이나 다름 없었다. 그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나만의 방을 가진다는 것은 범죄(?)에 가깝지 않았겠는가. 돌이켜 보면 결국 내 인생도 '자기만의 방'을 갖기 위한 처절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온전히 자기만의 방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은 미국 유학 시절의 기숙사 생활에서였다. 처음 한 학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영어도 익힐 겸 룸메이트가 있는 2인용 방을 택했다. 그러나 대만에서 온 그 여학생은 나하고는 생활 리듬이 달랐고 대만 친구들이 찾아와 중국어로 떠들어 댈 때는 시끄럽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미련 없이 싱글 룸으로 옮겼다. 그 세일즈 홀의 꼭대기 층인 4층,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방, 따라서 벽의 이면에 창이 있었고 창 하나는 지붕 창으로 약간 경사가 져 있었다. 나는 그 쪽 창을 서가로 꾸몄는데 친구들은 이 코너를 '작은 도서관'으로 불렀다. 방은 기름이 곱게 칠해진 마루가 깔렸고 창틀과 문은 고풍스런 디자인으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방에는 책상, 침대, 스탠드, 서랍 그리고 큰 옷장이 있었다. 지금의 내 연구실보다는 조금 더 큰 방이었다.

유학 생활 전체가 그러했지만, 아 그 곳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변방의 보수적이고 아무 것도 모르던 미숙한 '아이'를 열린 시각을 가진 꽤 성숙한(물론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아무 것도 모르고 미숙하지만) 성인으로 키워준 제2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다. 밤이 이슬하도록 페이퍼를 타이핑하다가 그 소리가 좀 크게 들린다 싶으면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늘 기숙사 아침 식사는 놓치기가 일쑤였던 생활, 또 삼일절 날 한국 학생들을 초대해서 열었던 커피 파티. 이탈리아인 이스프레소, 카푸치노, 아메리칸 드립식 커피 등 몇 가지를 준비하여 커피 맛에 눈떠가기도 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수업시간 발표 준비를 할 때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가. 공부하다 지치고

한국이 그리워 사무치면 가지고 갔던 판소리 진양조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 놓고 혼자 춤을 추기도 했다. 그 음악을 듣고 나면 한동안 속이 시원했다. 아마 그래서 또 넘어가고 견딜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귀국하여 강사 생활을 하던 시절 나는 다시 나의 방을 잃어 버렸다. 당시 는 집에서 방을 혼자 쓸 형편이 못 되었고, 또 학교에 나가도 강사들은 있을 곳이 없었다. 참으로 자기만의 방이 절실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아는 교수님의 방을 요일별로 좀 같이 쓰자고, 혹은 방학 동안만이라도 좀 쓰게 해달 라고 요청을 해 보았지만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숙제는 전임이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풀렸다. 처음에는 캠퍼스의 사정상 두 사람이 연구실을 함께 써야 했기 때문이었다.

귀국 후 어려운 강사 시절에 나는 결혼을 했다. 시집에서의 신혼 시절은 반 년은 송두리째 나를 내어 놓은 생활이었다. 스물네 시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 어디에도 나를 숨길 곳이 없었다. 우리 방(나의 방이 아니라도)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숨통이 막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온종일 부엌과 거실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어 식구들이 TV를 다 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 그때서야 그 거실이 우리 방이 되었던 것이다. 책 보고 글 쓰기 위해서

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프라이버시에 대한 나의 갈망은 무척도 컸다. 아마 당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은 출강하느라 타고 다녔던 고속버스의 좌석 정도였을까? 신혼 시절을 씩쓰레하게 회상하는 이유는 아마 그 스트레스에 대한 기억이 진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만의 방에 대한 갈망은 남편과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많이 사그라 들었지만 그 후에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부방을 갖는 문제였다. 연탄을 때는 방 2개짜리 좁은 아파트였는데, 남편도 공부하는 사람이라 먼저 남편 방을 차려줄 수밖에 없었다. 내 공부방을 가지는 것은 여전히 사치였다. 내 방은 안방이 되었고 이 방은 모두의 공간이었다. 신혼 초 그렇게도 찾아오던 남편 친구들, 남편의 동료 교수들(대부분 노인에 가까운 노장파 교수들), 시집과 친정의 친척들, 그들은 모두 안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는 곧 큰 아이가 태어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아파트를 좀 넓은 데로 옮겼지만 육아를 말아야 하는 내 입장에서 여전히 자기만의 공부방을 가지는 것은 무리였다. 아이들은 줄곧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여자들은 그렇다. 온 집이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여자들이 글을 쓰고 싶어도 '자기만의 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교수라는 직업 덕분에 집 밖에서나마 연구실이라는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온전히 내 연구실을 만끽하게 된 것은 겨우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로소 육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남자 교수들이 너무 부러웠다. 내가 남자였다면 박사학위는 2개, 3개라도 할 수 있다고 지금도 큰소리(?)친다. 우리 가부장 사회가 어떤가? 남자가 박사 논문을 쓴다면 온 가족이 그를 떠받들어 모신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글을 쓸 동안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의 어머니나 아내는 영양가 높은 음식과 보약(여유가 있다면)으로 몸보신을 해줄테고, 그에게는 집안의 모든 일이 면제될 것이다. 그는 오직 글쓰기에만 전념하면 된다. 그뿐인가. 그는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격려와 성원을 한몸에 받게 된다. 일찍이 시몬 보부아르가 갈파했듯이, 남자는 훌륭한 남자가 되는 길이 곧 훌륭한 인간이 되는 길이였다. 그러나 여

자는 훌륭한 인간이 되는 길이 곧 훌륭한 여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오히려 그 두 길은 정반대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방에 칩거하여 글 쓰는 여성을 사회는 과연 훌륭한 어머니라고, 훌륭한 아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겠는가? 혹시 후대에서는 그녀의 저술과 업적이 빛을 발할지 몰라도 당대에서는 주변에서 비난받기가 일쑤이고, 그 저술마저 평가절하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는 것이 탄탈로스의 샘물이고 영원한 신기루에 가깝다.

가부장 사회에서 처음엔 딸로서, 그리고 결혼하여 아내와 어머니로, 며느리로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여성들, 그 중에서도 일하는 여성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생명인 연구직에 있거나 창작 작업을 하는 작가들, 화가나 디자이너, 작곡가 등 이들에게는 500 파운드의 돈보다도 더욱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만의 방이다. 이것은 울프 이전의 시대에도, 울프의 시대에도, 그리고 이후의 시대에도 진리다. 식구들이 잠든 밤에 도둑불을 켜놓고 글을 써야만 했던 여성 작가들, 혹은 가족들에게 숨기고 몰래 글을 써야 했던 그들, 또 원고가 당선되어서야 비로소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들, 당선이 안 되면 그들의 글쓰기는 영원한 비밀의 범죄행위가 되어야만 하는가.

교수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 보통의 직장인들이 누릴 수 없는 이 은혜. 자기만의 방. 특히 여성인 내게 그것은 축복이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부장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이 공간이 없었다면 나는 내게 강요된 많은 다른 역할들을 다 감당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수퍼우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웬만큼 사회적 요구들을 해내고 있는 것은 자신을 추스리고 가다듬으며, 세상을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 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방은 내 고단한 여성적 삶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나는 분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10살 무렵 첫 소설을 실패로 붓을 꺾고 말았지만 이제는 어쩌면 다시 시

작할 수 있으리라. 울프의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내게 허락된 이상 아마 나는 불후의 명작을 이 방에서 탄생시켜야 하리라. 이 것은 내가 이 방에서 꿈꾸는 또 하나의 즐거운 음모이다. 하지만 아마 울프의 두 조건 다음에 '재능'이라는 세번째 조건을 덧붙여야 하는 달갑지 않은 일을 떠맡아 증명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

이지훈/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 연극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동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극단 TNT 레퍼토리'(창원시 소재)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 연출과 평론을 맡고 있다. '진흙', '말레우스 말레피카룸-마녀사냥' 등을 연출하였고, 주요 저서로 『벨자』, 『피뜨미네의 사흘』, 『카릴처칠 희곡집』 등이 있으며, "King Lear와 Lear의 민담 Source로서의 Cinderella Cycle", "King Lear의 모성 부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